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점심은 탁금란 집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점심과 오후찬양 예배는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주일낮예배 대표기도는 권용기 집사님입니다.
3. 다음 주일낮예배 시간에는 후반기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가지기로 했던 '성찬식'을 가집니다.
4. 윤형근 장로(양은임 권사)님이 지난 7월 15일, 양평군 청운면 설악로 257에 '장작불 곶탕'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권도형 형제가 '소방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오늘 간식을 섬깁니다. 축하합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날짜	7월 21일	7월 28일	8월 4일	8월 11일
담당	박성근 장로	권용기 집사	신동기 집사	박성대 집사
예배기도(2부)	박성근 장로	권용기 집사	신동기 집사	박성대 집사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탁금란 집사 가정	가정의 주일	박수진 집사 가정	노영란 집사 가정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티(힘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운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21번(시 34:1-4, 6-10) 다같이
*경배찬송	35장(통 50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311장(통 185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백성근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삼상 15:22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바로 그 믿음” 허영진 목사
기도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김진규 전도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청년부 다같이
여는기도	인도자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사 53:5 인도자
말씀선포	“나의 피난처 예수” 김진규 전도사
기도	김진규 전도사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찬송	70장(통 79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마 19:23-26 ‘기쁨으로 가야 할 길’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하늘문인만> 말씀묵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나를 내어줄 때

매년 봄이 되면 텃밭 가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빈 땅이라도 생기면 무엇이든 심을 심사입니다. 종묘상에서 구입해 온 상추며 쪽깍 등. 온갖 모종을 나중 먹거리로 기대하며 심습니다. 이랑과 고랑을 만든 텃밭 위에도 두둑을 쌓고 여린 모종을 조심스레 옮깁니다. 그러다 온실에서 짝을 틔운 모종이 처음으로 바람을 마주했을 때를 상상해봅니다. 모종이 바람을 털어내며 ‘앗, 이게 뭐야?’ 낭창하게 몸을 흔들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모종은 때론 비바람을 맞고, 가끔은 고개를 숙인 채 비를 견디는 날도 있겠지요. 물론 따뜻한 햇살 아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모종은 온실이 아닌, 지상에서 자기 그늘을 한 뼘쯤 키워갈 것이 분명합니다.

새롭게 일군 텃밭의 토양에 충분히 뿌리 내리지 못한 모종은 활력 있는 생명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종이 웃자라도 옮겨 심은 후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자란 모종은 딱잎 위 줄기를 잘라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면 딱잎 사이에서 새순이 올라온다고 농사 짓는 이들이 귀땀해줍니다. 그런 걸 보면 모종을 텃밭에 옮겨다 심고서 안착하는 과정이 신앙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았으면 합니다. 머릿속 온실에서만 자란 신앙이 손끝을 통해 세상으로 옮겨지는 구도를 말이죠. 여전히 구습을 쫓는 신앙,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이라면, 이는 신앙도 아닐뿐더러 나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온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온실을 발판삼아 힘겹지만 현실 세계로 나와서 부딪쳐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부단히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 써야 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들 그렇듯,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온실을 가꾸는 데만 열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모종을 삶에 옮겨 놓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함도 수고로움도 감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내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도로 얻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나를 내어 줄 때, 비로소 생명의 꽃은 피어날 것이고, 나아가 그 삶이 줄기를 뿜어 다양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온실 안에서만 머무는 것 같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새삼 모종 옮기는 일의 놀라움을 생각해 봅니다.

Written by 허영진